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여가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Empirical Leisure Environment Satisfaction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 Employees in Innocity

백민, 안형순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Min Baek(baek5851@gmail.com), Hyung-Soon An(hsan99@dsu.ac.kr)

요약

본 연구는 혁신도시 여가환경 개선이 혁신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혁신도시 여가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43개 여가활동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혁신도시로의 이주 전 중요도와 이주 후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주 전 중요도에 비해 이주 후 만족도가 더 높은 여가활동은 문학행사 참여 등 13개 여가활동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30개 여가활동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PA분석결과, 문화예술관광 활동과 사회 및 기타여가활동이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인 만족도(3개 문항)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여가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전반적으로 정적인 여가활동들은 만족도에 유의한 반면, 동적인 여가활동들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혁신도시 여가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적여가활동이 가능한 문화시설용지의 조속한 개발, 스포츠참여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운동시설 확충, 주변 관광지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관광활동 활성화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 중심어 : | 혁신도시 | 이전 공공기관 | 여가활동 | 로지스틱 회귀분석 | 만족도 |

Abstract

With respect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innocity from improvements in leisure environments, this research examine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innocity leisure environments to propose political implications. In order to do so, 43 leisure activities were chosen, and the level of importance of those activities to the residents prior to moving to the innocity was compared to the level of satisfaction the residents felt regarding the activities after moving. As a result, 13 activities, including literature attendance, had greater levels of satisfaction after moving than the levels of importance prior to moving. The rest (30) activities showed the opposite results. We deduc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level of satisfaction by perform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3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the static and passive leisure activities had higher satisfactory levels, whereas the dynamic and active had lower satisfactory levels. Thus, innocity must develop culture facilities quickly, expand exercise facilities to support sports activities, and promote tourism by improving and networking with tourist attractions in order to improve future satisfactory levels of leisure activities.

■ keyword : | Innocity | Public Institution | Leisure Activity | Logistic Regression | Satisfaction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4년 노무현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통해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계획하였고, 2018년 말 기준 110개 공공기관이 이전완료(계획대비 97.3%)함으로써 혁신도시는 주거와 일자리가 양립하는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 동반 이주는 미비하고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낮으며, 인구성장추세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도시가 물리적 측면에서는 거의 완성되었지만 혁신도시내의 다양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역발전위원회(2015)가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혁신도시 이주 후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료·문화·복지시설 불편(54.1%), 광역대중교통 불편(48.5%), 여가오락공간의 부족(20.6%) 등으로 나타났다[1]. 특히 문화·복지시설이나 여가오락공간의 부족은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여가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서울 등 수도권에 입지하였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수도권에 거주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18)에 의하면 여가산업과 여가서비스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여가기반에 많은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이를 통해 볼 때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여가환경은 이주 전에 비해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처럼 낮은 여가환경 수준은 혁신도시 정주환경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의 여가활동은 단순한 휴식을 취하는 개념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여가활동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기존의 단순한 휴식이나 TV시청 등의 소극적 여가활동에서 벗어나 레저스포츠, 여행, 문화 및 축제활동에의 참여 등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3]. 이처럼 여가가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장되면서 여가활동의 양과 내용이 행복감,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4][5]. 즉 도시에서의 여가활동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이다.

그동안의 여가인프라 조성 노력은 공급자적 시각에 주력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요구과약이 부족하여 비효율적인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을 양산했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이 있었다[6-8].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는 혁신도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여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혁신도시내에서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많은 계획인구와 이전 공공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규모는 전북혁신도시 다음으로 넓은 면적으로 개발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후 빛가람 혁신도시)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다. 시간적 범위는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로 설정한다. 내용적 범위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의 차별성과 연구방법 등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IPA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여가란 활동의 중지예 의해 얻어지는 자유나 남은 시간으로 일 또는 의무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되거나, 책임이나 고용에서 벗어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자유시간으로 정의되며, 선진국의 경우에 여가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여가를 인생의 목적으로 여가를 즐기 위하여 산다는 가치관

즉, 여가지향의 사회로 가고 있다[9].

국민여가활동조사(2018)에 의하면, 2016년 대비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일 여가시간은 3.3시간 휴일 여가시간은 5.3시간 증가하였고, 월평균 여가비용은 1만 5천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활동 유형을 조사한 이래 처음으로 취미·오락활동(90.5%)이 휴식활동(86.0%)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점차 소극적 여가활동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활동에 집중할수록 행복수준도 높아졌으며, 여전히 가구소득에 따른 여가활동의 격차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0].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점차 여가생활과 동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에 관련된 기존연구는 여가활동 참가, 유형, 제약 등을 통해 여가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와 여가공간 등 외부요인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찬명 등(1996)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여가활동과 생활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가활동 참가는 생활만족을 향상시키고,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만족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스포츠 활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11].

이관희 등(2009)은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직업 등의 사회적 속성에 따라 여가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연령에 따른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성별이나 직업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평일에는 비교적 정적이고 소극적인 활동이, 주말에는 동적이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2].

조광익 등(2012)은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가족소득수준별 여가활동과 여가소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및 여가소비가 높고 젊은층일수록 야외활동을 선호하는 반면 40대 이상은 개인적인 취미활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3].

윤채빈 등(2018)은 직장인의 여가소비유형을 실용적 소비형, 적극적 소비형, 과시적 소비형, 소극적 소비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여가계약인 시간적 제약,

환경적 제약, 신체적 제약, 대인적 제약, 경제적 제약, 태도적 제약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여가소비유형별로 여가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14].

윤정미 등(2014)은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도시내 오픈스페이스 제공이 옥외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오픈스페이스 공급이 증가할수록 도시민의 옥외 여가활동이 증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오픈스페이스가 제공하는 옥외 여가활동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15].

장평린 등(2018)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여가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인식하에 미세먼지 농도와 옥외 여가활동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시공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옥외 여가활동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임계기준인 $50\mu\text{g}/\text{m}^3$ 을 상회한 경우 옥외 여가활동은 일평균 0.4%, 연평균 14%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6].

기존 연구들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가시간이나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거나 외부요인에 의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개발과 같이 국가정책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여가활동별로 이주전과 이주후를 비교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비자발적 이주자가 해당 도시에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가족단위 이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여가활동을 포함한 정주환경 만족도가 높아야만 지역에 대한 애착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이 성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신도시들은 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즉, 신도시계획 수립시 여가공간 등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경우 단기간내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현성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혁신도시라는 새롭게 조성된 도시

에 타 지역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이주자를 대상으로 여가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향후 혁신도시 여가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설문개요

본 연구는 빛가람 혁신도시 내 15개 이전 공공기관 중 한진,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력거래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혁신도시내에서의 여가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270부중 불성실한 답변이 포함된 8부를 제외한 262부를 유효표본으로 선정¹하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종속변수인 여가활동 만족도 항목과 독립변수인 개별 여가활동에 대한 이주 전 중요도와 이주 후 만족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 3개 문항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설문문항 구성(종속변수)

구분	변수 설명
여가활동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보통 4:약간만족 5:매우 만족
이사 시점과 비교하여 여가활동 환경 개선 여부	1: 개선되지 않음 2: 개선되었음
이전 거주지와 비교하여 여가활동 환경 만족 여부	1: 이전 거주지에 비해 불만족 2: 이전 거주지에 비해 만족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여가활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2019)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가활동 중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가능한 여가활동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제시한 여가활동은 8개 대분류와 85개 소분류로 여가활동을 구분하고 있다. 이중 혁신도시 여건을 고려하여 43개 여

가활동²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43개 여가활동에 대해 이주 전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음부터 매우 중요까지, 이주 후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에서부터 매우 만족까지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표 2].

표 2. 설문문항 구성(독립변수)

대분류	소분류	
문화 예술 관람 활동(8)	전시회 관람(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등)	연극공연 관람
	박람회 관람	무용공연 관람
	음악연주회 관람	영화관람
	전통예술공연 관람	연예공연 관람(쇼, 콘서트, 마술쇼 등)
문화 예술 참여 활동(7)	문학행사 참여	전통예술 배우기(사물놀이, 줄타기 등)
	글짓기/독서토론	사진촬영(디지털카메라 포함)
	미술활동(그림, 서예, 조각, 만화 등)	춤/무용(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악기연주/노래교실	
스포츠 관람 활동(1)	스포츠경기 직접관람(경기장 방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참여 활동(6)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족구	볼링, 탁구
	테니스, 스쿼시	골프
	당구, 포켓볼	수영
관광 활동(8)	문화유적 방문 (고궁, 절, 유적지 등)	쇼핑, 야유회
	자연명승 및 풍경관람	온천, 해수욕
	삼림욕	테마파크, 놀이공원, 동물원, 식물원 가기
	국내캠핑	지역축제 참가
취미 오락 활동(6)	생활공예(십자수, 비즈공예, DIY, 꽃꽂이 등)	낚시
	요리하기, 다도	쇼핑/외식
	등산	여학기술자격증 취득 공부학원 등 이용
휴식 활동(2)	산책 및 걷기	목욕, 사우나, 찜질방
사회 및 기타 활동(5)	사회봉사활동	계모임/동창회/사교(파티모임)
	종교활동	친구만남/동호회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2. 분석방법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여가활동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43개 여가활동에 대해 혁신

1. 본 연구의 설문대상자는 백민 등(2018)의 연구와 동일한 조사 대상자로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정주환경과 여가활동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2. 본 연구는 혁신도시내에서의 여가활동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혁신도시내에서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여가활동은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스키나 아이스스케이팅 등의 활동은 혁신도시내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가활동 등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제시한 여가활동에서 제외된 여가활동은 42개 여가활동이다.

도시로의 이주 전 중요도와 이주 후 만족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43개 여가활동의 평균값 분석을 통해 소분류 여가활동별 이주전 중요도와 이주후 만족도간 차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주전 중요도와 이주후 만족도간 차이를 통해 빗가람 혁신도시 여가활동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8개 대분류를 중심으로 IPA분석(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을 실시한다.

IPA분석은 Martilla와 James(1977)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된 분석방법으로 수행도(Performance)를 대신하여 만족도(Satisfaction)의 개념을 적용하여 활용하기도 한다[17].

마케팅 분야에서 특정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폭넓게 활용되었으며, 정책학, 행정학 분야에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18].

IPA분석은 일반적으로 평균값을 통하여 4사분면의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다. IPA분석기법은 분석의 간편성, 적용의 용이성, 저비용 등의 여러 장점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유용성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경쟁환경 속에서 자신의 주력 상품과 서비스의 중요성 정도와 성취도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전략적 항목을 도출할 수 있다[19].

높음 ↑ 중요도 ↓ 낮음	제2사분면	제1사분면
	집중영역 (Concentrate here) 높은 중요도-낮은 만족도	유지영역 (Keep up the good work) 높은 중요도-높은 만족도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저순위영역 (Low Priority) 낮은 중요도-낮은 만족도	과잉영역 (Possible Overkill) 낮은 중요도-높은 만족도
	낮음	높음

그림 1. IPA분석 개념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응답결과가 다양한 척도에 의하여 명목상으로 분할되어 있는 선택지를 거쳐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종속변수가 명목변수로 구성되어 있고 독립변수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대표적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형태가 0, 1과 같이 이항(binary)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이라고 부른다.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ln\left(\frac{P}{1-P}\right) = \alpha + \beta_1X_{1i} + \beta_2X_{2i} + \dots + \beta_pX_i + e_i$$

위 모형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P_i = \frac{e^{(\alpha + \beta_1X_{1i} + \beta_2X_{2i} + \dots + \beta_pX_i)}}{1 + e^{(\alpha + \beta_1X_{1i} + \beta_2X_{2i} + \dots + \beta_pX_i)}} + e_i$$

여기서 회귀계수의 부호가 양수이고 값이 커지며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부호가 음수이고 절대값이 커지면 성공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인 경우 다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한다. 그러나 종속변수가 순서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서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순서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은 단순한 선택확률을 구하는 다항 로지스틱회귀분석에 비해 해석이 용이하고 가설 검정에 있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불만족(1)부터 매우 만족(5)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형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사용한다. 순서형 로지스틱회귀분석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20].

$$\ln\left(\frac{\Pr(y = i|x)}{\Pr(y = D + 1|x)}\right) = \alpha + \beta_1X_{1i} + \beta_2X_{2i} + \dots + \beta_pX_i + e_i$$

IV. 분석결과

1. 여가활동의 중요도-만족도 차이분석

43개 여가활동 중 혁신도시로의 이주전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여가활동은 문화행사 참여 등 6개 문화예술참여활동, 골프 등 2개 스포츠참여활동, 지역축제 참가 등 1개 관광활동, 생활공예 등 3개 취미오락활동, 종교활동 등 1개 사회 및 기타활동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13개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이주전 중요도에 비해 이주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문화예술관람활동에 해당하는 8개 여가활동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혁신도시내 문화예술관람을 지원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문화예술참여활동에 해당하는 6개 여가활동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여가활동 중 혁신도시 내에서는 관람시설은 부족한 반면 참여를 위한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참여활동에 대해서는 이주 전 중요도 평균값이 2.64로써 낮게 평가한 점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표 3].

표 3. 중요도-만족도 차이 분석

구 분		중요도(A)	만족도(B)	A-B
문화 예술 관람 활동	전시회	3.42	2.26	1.16
	박물관	3.09	2.43	0.66
	음악연주회	3.21	2.33	0.88
	전통예술공연	2.73	2.50	0.22
	연극공연	3.40	2.18	1.23
	무용공연	2.81	2.41	0.41
	영화보기	4.03	3.07	0.96
	연예공연	3.25	2.29	0.97
평 균	3.24	2.43		
문화 예술 참여 활동	문학행사참여	2.68	2.74	-0.06
	글짓기/독서토론	2.58	2.74	-0.16
	미술활동	2.70	2.74	-0.03
	악기연주/노래교실	2.89	2.73	0.15
	전통예술 배우기	2.44	2.77	-0.34
	사진촬영	2.65	2.74	-0.09
	춤/무용	2.52	2.74	-0.23
	평 균	2.64	2.74	
스포츠관람활동	3.14	2.58	0.56	
스포 츠 참여 활동	야구/축구/농구/배구, 족구	3.16	2.30	0.17
	테니스/스쿼시	3.04	2.99	0.06
	당구/포켓볼	2.90	3.07	-0.16
	볼링/탁구	3.14	3.10	0.04
	골 프	2.94	3.18	-0.23
	수 영	3.38	2.55	0.83
	평 균	3.09	2.87	
관광 활동	문화유적방문	3.30	3.15	0.15
	자연명승 및 풍경관람	3.39	3.31	0.08
	삼림욕	3.41	3.25	0.17
	국내캠핑	3.18	3.09	0.09
	소풍/야유회	3.36	3.15	0.22
	온천/해수욕	3.29	2.89	0.41
	테마파크/놀이공원/동물원/ 식물원가기	3.50	2.49	1.02
	지역축제 참가	2.98	3.01	-0.04
	평 균	3.30	3.04	
취미 오락 활동	생활공예	2.51	2.79	-0.28
	요리하기/다도	2.86	2.72	0.15
	등 산	2.89	3.06	-0.17
	낚 시	2.44	2.90	-0.45
	쇼핑/외식	4.00	2.33	1.67
	여행기술자격증 취득 학원 등 이용	3.68	2.25	1.43
	평 균	3.06	2.68	
휴식	산책 및 걷기	4.22	3.80	0.42

활동	목욕/사우나/찜질방	3.68	3.15	0.54
	평 균	3.95	3.48	
사회 및 기타 활동	사회봉사활동	2.91	2.85	0.06
	종교활동	2.77	2.89	-0.12
	가족 및 친지방문	3.83	2.38	1.45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	3.33	2.43	0.90
	친구만남/동호회 모임	3.90	2.24	1.66
평 균	3.35	2.56		

2. 신뢰도 및 IPA분석

본 연구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여가활동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8개 대분류와 43개 소분류의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8개 대분류의 평균값을 통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분석 이전에 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적일관성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계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내적 일관성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값이 0.638-0.959 사이에 분포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신뢰되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표 4.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구 분	Cronbach's α	
	중요도	만족도
문화예술관람활동	0.898	0.912
문화예술참여활동	0.932	0.959
스포츠참여활동	0.869	0.839
관광활동	0.920	0.885
취미오락활동	0.796	0.780
휴식	0.638	0.644
사회 및 기타활동	0.746	0.795

전술한 바와 같이, IPA분석은 각 여가활동을 4개 사분면으로 구분하고,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2사분면,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영역)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2사분면의 여가활동은 문화예술관람활동과 사회 및 기타여가활동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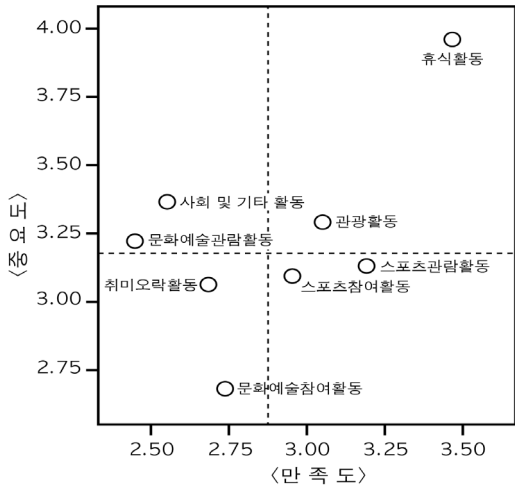


그림 2. 여가활동 중요도-만족도(IPA) 분석결과

첫째, 문화예술관람활동은 전시회, 박물관, 연주회 등 각종 공연을 관람하는 활동으로써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과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최초 토지이용계획시 문화시설 용지(1개 필지 34,776㎡)와 문화복지교육연구시설 용지(1개 필지 9,086㎡)가 계획되었다, 그러나 해당 용지는 분양은 되었지만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화시설용지에 대한 다른 용도로의 토지이용변경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 문화예술관람과 관련된 여가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당초 토지이용에 부합되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도시 전체 면적대비 문화시설 용지는 0.008%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인당 문화시설 용지면적이 0.88㎡로써 최초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지나치게 적은 면적만을 문화시설 용도로 계획한 것도 한계라 할 수 있다.

둘째 사회 및 기타활동의 경우 가족 및 친지방문, 친구나 동호회 모임 등이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전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라남도 나주로 이전함에 따라 가족 및 친지방문이나 친구만남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3. 여가활동 환경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3.1 여가활동 만족도 기초통계량 분석

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62로써 혁신도시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사 시점과 비교할 때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1.73으로써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전 거주지와 비교할 때 만족정도는 1.10으로써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음 혁신도시로 이주할 때와 비교하면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혁신도시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표 5. 여가활동 만족도 기초통계 분석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반적인 만족도	2.62	.86702	1.00	5.00
이사 시점과 비교하여 개선 여부	1.73	.44333	1.00	2.00
이전 거주지와 비교하여 만족 여부	1.10	.29486	1.00	2.00

3.2 이사 당시와 비교할 때 여가활동 환경 개선 여부

기초통계분석에서 빛가람 혁신도시로 처음 이사왔을 때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4.733$, 자유도=16, $p<0.05$).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관계는 Cox & Snell의 R^2 은 0.270, Nagelkerke의 R^2 은 0.388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델의 분류정확도는 79.3%를 보이고 있다[표 6].

표 6. 유의도 검증과 설명변량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Cox & Snell의 R-제곱	Nagelkerke의 R-제곱	분류정확도(%)
54.733	16	.000	0.270	0.388	79.3

개별 특성의 유의도 검증($p<0.05$) 결과, 스포츠 관람 중요도, 휴식활동 만족도가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즉, 이주전 스포츠 관람의 중요도와 휴식활동 만족도가 1만큼 증가할수록 각각 1.81배, 2.23배 이주 당시에 비해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도 검증(p<0.1)에서는 사회 및 기타활동 만족도가 1만큼 증가할수록 2.35배 이주 당시에 비해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개별 회귀계수의 유의도 검증

		B	S.E.	Wald	유의확률	Exp(B)
문화예술 관람활동	중요도	-.397	.409	.945	.331	.672
	만족도	.231	.496	.217	.641	1.260
문화예술 참여활동	중요도	-.117	.375	.098	.754	.889
	만족도	.180	.564	.102	.750	1.197
스포츠 관람활동	중요도	.594	.291	4.176	.041*	1.811
	만족도	.487	.308	2.502	.114	1.628
스포츠 참여활동	중요도	-.406	.386	1.107	.293	.666
	만족도	.607	.428	2.017	.156	1.835
관광활동	중요도	.369	.437	.713	.399	1.446
	만족도	.133	.551	.058	.809	1.142
취미오락 활동	중요도	.344	.495	.481	.488	1.410
	만족도	.439	.695	.399	.528	1.551
휴식활동	중요도	-.190	.345	.304	.581	.827
	만족도	.800	.383	4.357	.037*	2.225
사회 및 기타활동	중요도	-.074	.421	.030	.861	.929
	만족도	.853	.484	3.111	.078**	2.348
상수항		-9.575	2.869	11.136	.001	.000

*:p<0.05, **:p<0.1

3.3 이사 전 거주지와 비교할 때 여가활동 만족 여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사하기 전 거주지와 비교할 때 현재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4.415$, 자유도=16, p<0.05).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관계는 Cox & Snell의 R²은 0.179, Nagelkerke의 R²은 0.419로 나타났다. 또한 모델의 분류정확도는 92.5%를 보이고 있다[표 8].

표 8. 유의도 검증과 설명변량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Cox & Snell의 R-제곱	Nagelkerke의 R-제곱	분류정확도 (%)
34.415	16	.005	0.179	0.419	92.5

개별 변인의 유의도 검증(p<0.05) 결과, 사회 및 기타 활동 만족도가 1만큼 증가할수록 7.18배 이전 거주지와 비교하여 여가활동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도 검증(p<0.1) 결과, 문화예술관람활동 만족도가 1만큼 증가할수록 6.63배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개별 회귀계수의 유의도 검증

		B	S.E.	Wald	유의확률	Exp(B)
문화예술 관람활동	중요도	.561	.767	.536	.464	1.753
	만족도	1.892	1.038	3.321	.068**	6.629
문화예술 참여활동	중요도	-.404	.667	.366	.545	.668
	만족도	-1.729	1.200	2.076	.150	.177
스포츠 관람활동	중요도	.262	.448	.343	.558	1.300
	만족도	.570	.476	1.434	.231	1.768
스포츠 참여활동	중요도	.551	.715	.594	.441	1.735
	만족도	1.274	.959	1.763	.184	3.574
관광활동	중요도	-.561	.744	.568	.451	.571
	만족도	.479	.995	.231	.630	1.614
취미오락 활동	중요도	.320	.934	.117	.732	1.377
	만족도	.408	1.365	.089	.765	1.503
휴식활동	중요도	-.734	.597	1.511	.219	.480
	만족도	-.637	.772	.681	.409	.529
사회 및 기타활동	중요도	-.169	.745	.051	.821	.844
	만족도	1.971	.935	4.440	.035*	7.176
상수항		-13.258	4.210	9.917	.002	.000

*:p<0.05, **:p<0.1

3.4 혁신도시내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빛가람 혁신도시내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기 위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카이제곱 통계량에 대한 유의 확률이 0.000이므로 독립변수가 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Cox & Snell의 R²은 0.487, Nagelkerke의 R²은 0.532로써, 모형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표 10. 유의도 검증과 설명변량

모형	-2 LL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Cox & Snell의 R-제곱	Nagelkerke의 R-제곱
절편 만	499.401				0.487	0.532
최종	313.291	116.110	16	.000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도 검증(p<0.05) 결과, 스포츠관람활동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문화예술관람활동 중요도와 취미오락활동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혁신도시내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1].

표 11. 개별 회귀계수의 유의도 검증

		B 추정값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문화예술 관람활동	중요도	-.766	.326	5.509	.019*
	만족도	.440	.381	1.333	.248
문화예술 참여활동	중요도	.052	.292	.032	.858
	만족도	.282	.431	.428	.513
스포츠 관람활동	중요도	.792	.212	14.008	.000*
	만족도	.662	.223	8.834	.003*
스포츠 참여활동	중요도	.385	.277	1.922	.166
	만족도	-.057	.324	.031	.859
관광활동	중요도	.271	.312	.753	.386
	만족도	.367	.387	.901	.343
취미오락 활동	중요도	.025	.380	.004	.947
	만족도	1.277	.528	5.846	.016*
휴식활동	중요도	-.133	.257	.269	.604
	만족도	.477	.293	2.658	.103
사회 및 기타활동	중요도	-.248	.310	.639	.424
	만족도	.521	.340	2.350	.125

*:p<0.05, **:p<0.1

3.5 여가활동 만족도 결정요인 종합분석

여가활동 만족 여부에 대한 3개의 종속변수와 8개의 여가활동 독립변수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한 변수를 도출한 결과,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참여활동, 관광활동은 여가활동 만족도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의하지 않은 독립변수들은 공통적으로 중요도-만족도간 비교분석에서 0.3이내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대체적으로 동적인 여가활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혁신도시로 이주전에 가졌던 중요도와 이주후에 느끼는 만족도간에 차이가 적은 경우 여가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참여활동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문화예술참여활동에 대해 이주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만족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가활동 만족도에 2개 이상의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된 여가활동은 문화예술관람활동, 스포츠관람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가활동 만족도에 1개 이상의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된 여가활동은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여가활동의 공통점은 대체적으로 정적인 여가활동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정적 여가활동이 혁신도시내 전반적 여가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표 12].

표 1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 유의변수 종합

		이주 당시 비교 여가환경 개선 여부	이전 거주지와 비교 만족 여부	전반적인 여가환경 만족도
문화예술 관람활동	중요도			+
	만족도		+	
문화예술 참여활동	중요도			
	만족도			
스포츠 관람활동	중요도	+		+
	만족도			+
스포츠 참여활동	중요도			
	만족도			
관광활동	중요도			
	만족도			
취미오락 활동	중요도			
	만족도			+
휴식활동	중요도			
	만족도	+		
사회 및 기타활동	중요도			
	만족도	+	+	

p<0.1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지역불균형문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였던 혁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혁신도시에서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여가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혁신도시의 여가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혁신도시로의 이주전 여가활동에 대한 중요도와 이

주후 만족도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참여활동을 중심으로 13개 여가활동이 이주전 중요도에 비해 이주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8개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가활동별로 이주전 중요도와 이주후 만족도에 대한 IPA분석결과 2사분면에 해당하는 문화예술관람활동과 사회 및 기타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여가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관람활동, 스포츠관람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등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참여활동, 관광활동 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정적인 여가활동에 해당된다면,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들은 동적인 여가활동에 해당된다. 즉, 현재 혁신도시에서는 정적인 여가활동은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동적인 여가활동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향후 혁신도시에서 여가활동 공간이나 프로그램 개발시 동적인 여가활동 공간이나 프로그램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빛가람혁신도시내에서 문화예술참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시설 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분양된 문화시설 용지에 대해 최근 타 용도로의 전환 등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시설 용지의 조속한 개발을 통한 지역내 문화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스포츠참여활동의 경우 골프와 당구 등의 여가활동은 중요도-만족도 차이 분석결과, 만족도가 높지만 나머지 활동은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빛가람혁신도시내에서는 대중적인 여가활동인 야구, 축구 등을 위한 운동시설과 수영 등의 실내스포츠 활동공간이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수영장 도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내 스포츠 참여활동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초 혁신도시 토지이용계획에서 다양한 체육시설이 계획되지 못하고 골프장만을 도입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빛가람혁신도시 주변에 전담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를 활용하여 체육활동이 가능한 여가공간 도입이 필요하다.

관광활동은 지역축제 참가를 제외하고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빛가람혁신도시가 입지하고 있는 전남의 여건을 고려할 때 관광활동에 해당되는 시설은 광범위하게 넓게 분포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에 대해 불만족한 것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대중교통 제공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주변 시군과의 연계를 통해 혁신도시 이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결론

국민여가활동조사(2018)에 의하면 점차 정적인 여가활동은 감소하는 반면, 동적인 여가활동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빛가람 혁신도시에 대한 여가활동 만족도 분석결과 동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빛가람 혁신도시 여가활동은 최근의 여가활동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윤정미(2017)는 오픈스페이스 공급이 증가할수록 옥외 여가활동이 증진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빛가람 혁신도시는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시설 용지, 체육시설 용지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개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 거주민의 여가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적인 여가활동 공간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식을 기반으로 여가활동 만족도를 분석한 점과 설문조사가 특정지역만으로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혁신도시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입장에서 여가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분석 및 극대화 방안*, 2015.

[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2018.

[3] 김상환, 윤대식, 김갑수, “도시 여가활동의 참여행태 및 요인분석,” *대한교통학회지*, 제22권, 제3호, pp.41-48, 2004.

[4] D. B. Newman, L. Tay, and Ed Diener, “Leisure and subjective Well-Being,” *J. of Happiness Studies*, Vol.15, No.3, pp.555-578, 2014.

[5] 민경선, “한국인의 여가생활패턴과 삶의 만족도,” *여가학연구*, 제14권, 제3호, pp.57-84, 2016.

[6] 노용구, “지역사회 여가정책 방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 학술세미나*, pp.56-66, 2003.

[7] 유지근, “스포츠시설 조성현황 및 미래형 스포츠시설의 확충방향,” *스포츠과학*, 제86권, pp.17-23, 2003.

[8] 조민행, 전용배, “지역주민의 체육공원 이용성 및 접근성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4권, 제5호, pp.631-641, 2005.

[9] 한국조경학회, *조경 계획론*, 문운당, 1986.

[10] 문화체육관광부,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2019.

[11] 유찬명, 문용, “여가활동 참가와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5권, pp.113-124, 1996.

[12] 이관희, 윤주철, “도시민의 여가 활동 만족도 분석-대도시민을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3권, 제4호, pp.43-50, 2009.

[13] 조광익, 도경록, “도시민의 여가소비와 주말 여가 활동의 관계,” *관광연구저널*, 제26권, 제4호, pp.45-72, 2012.

[14] 윤채빈, 박수정, “직장인의 여가소비유형별 여가계약 연구,” *여가학연구*, 제16권, 제2호, pp.67-97, 2018.

[15] 윤정미, 최막중, “도시 오픈스페이스가 옥외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전체 주민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지*, 제42권, 제4호, pp.21-29, 2014.

[16] 장평린, 최막중, “미세먼지가 옥외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제53권, 제3호, pp.133-143,

2018.

[17] J. A. Martilla and J. C. James,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Vol.41, No.1, pp.77-79, 1977.

[18] 임성근, 소순창, 이창섭, “TPA분석을 활용한 정부 3.0 서비스 정부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 인식 차이 분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제55권, 제2호, pp.137-167, 2017.

[19] M. Jon Hawes and C. P. Rao, “Us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o Develop Health Care Marketing Strategies,” *J. of Health Care Marketing*, Vol.5, No.4, pp.19-25, 1985.

[20] 백민, 안형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혁신도시 거주환경 만족도 평가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2호, pp.444-455, 2018.

저 자 소 개

백 민(Min Baek)

정회원



- 2010년 2월 :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학사)
- 2017년 9월 ~ 현재 :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 도시계획, 도시설계, 주거환경

안 형 순(Hyung-Soon An)

정회원



- 1995년 2월 : 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과(공학석사)
- 2001년 2월 : 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과(공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도시계획,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